책망의 은혜

고든 맥도널드(Gordon MacDonald) / *Leadership*지의 편집인.
국제 구호선교회(World Relief) 의장

내가 처음 시무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그러한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설교단에 서서 전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교 프로젝트를 주기 원하신다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 예산을 훨씬 넘는 6,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비용이 적어도 한 달 안에 모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인들이 그 일을 잘 이뤄줄 것에 대해 미리 감사의 말을 했다.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이다.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이다.

다음 날 저녁, 교회의 위원회 모임 장소로 들어가면서 솔직히 나는 어제 보여주었던 나의 과감한 리더십에 대해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기에 위원회의 의장이 모임을 시작하자마자 어니스트 크로스트 씨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크로스트 씨는 75세의 덕망 있는 노인으로 교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었다.

'크로스트 씨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의장이 말했다. '고든 목사님,' 그가 말하였다. '제가 목사님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놀란 숨을 들이쉬었다. 크로스트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목사님께서는 어제 아침의 발표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목사님께서 우리와 미리 상의함 없이 교인들에게 돈을 요청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어제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언제든 그 예산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혼자서 그것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선교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목사님의 결정을 지지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는 '독불장군처럼 비전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내가 16살이었을 때, 육상부 코치 선생님이 나에게 '너는 언제나 일들을 '어렵게' 배우는구나'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 경주에서 지고 난 직후였다. 내가 코치 선생님의 지도를 따랐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날 나는 경기장을 나오면서 '다시는 뭔가를 '어렵게' 배우지는 않을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았다. 나의 삶은 책망과 나무람, 충고들로 점철되어 있다. 아버지로부터, 선생님들, 친구들, 비평가들, 그리고 내가 시무한 네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나는 그러한 책망들 하나하나가 나의 성품과 행동들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들은 결코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책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책망'이란 어떤 이로 하여금 행동이나 태도의 잘못된 점을 직시하

도록 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를 보게끔 돕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들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나는 익명으로 온 편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안다. 또 나의 동기나, 성품, 신학이나 정치에 대해서 냉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내 앞에서는 따뜻하게 얘기하다가, 나의 등 뒤에 가서는 차갑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책망'이 아니다.

'책망'은 다르다. 진정한 책망은 고결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것은 다른 이가 성숙과 효율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 안에 참된 것'이라고 표현했다(엡 4:15). 성경을 보면, 그러한 책망들을 종종 모질게 주어졌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책망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삼상 13:13-14).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 3:1-2).

모든 책망들이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열상 22:8).

곤란한 이야기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리더들에 대해서, 나는 매우 우려가 된다. 그들은 오직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던져버린다.

좋은 책망이란, 분명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이다. 말을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며, 듣는 이는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안다. 보통 좋은 책망이란, 생각나는 대로 즉석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도로서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서 그 내용이 정해진다. 만약 책망하는 이에게 책망이 쉽게 느껴진다면, 그는 다른 방법의 책망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망 중 하나는, 넋두리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준엄한 꾸짖음이셨다. 우주에 걸친 그 권능의 위업을 들은 후에,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3-6). 자신에게 주어진 책망에 반응함에 있어서, 욥의 반응보다 더 좋은 반응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1724년 11월 22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일기에서, 책망의 귀중함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하였다. '우리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단점들을, 주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잘 파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느껴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패가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어떠한 잘못들을 발견하는지 배울 것이다. 비난받을 만하고, 사랑스럽지 못하며, 부적당하게 여겨지는 것들 -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내 안에서 보는 것들을 배울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19세기 성공회 목사 찰스 시므온은 사역 초기에 자만심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친한 친구가, 그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시므온 자신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다. 그 다음 날, 시므온은 자신의 멘토였던 헨리 벤에게 이러한 글을 썼다:

'신실한 친구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축복인지요! 사탄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지적하려고 바쁩니다. 하지만 오직 신실한 친구만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걸러내고, 우리의 결점이나 단점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배교는, 주로 자아의 우상을 만드는 것인 듯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좇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를 의지하려는 그러한 경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훔친 '권위'를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친구야말로, 가장 귀중한 친구입니다.'

책망은, 영적인 통찰력과 성품 혹은 능력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더 선한 유익을 얻기에 해가 되는 것들을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다.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신학교에 다니던 무렵, 나는 학생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특별 포럼을 위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나는 마감 일자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논문을 쓰고 있지 않다가, 마감 직전 이틀 동안 수업도 다 빠진 채 몰아서 글을 완성하였다. 포럼 당일 나는 논문을 잘 발표하였고, 청중들은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강당을 떠났다.

그 때 한 교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다가오셨다. 그분은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빠졌던 수업의 교수님이셨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고든, 좋은 논문이었네. 하지만 훌륭한 논문은 될 수가 없었지. 왜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나?'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분은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 '자네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자네 일상의 책임들을 희생하였기 때문이지. 만약 자네가 그러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자네의 사역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사역에 있어서 40년 이상의 선배이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권고를, 나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분은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다. 오히려 그 글을 썼던 방법, 그리고 그것을 형성했던 성격의 패턴에 관심을 두셨다. 그 논문은 곧 잊혀질 것이었다. (사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글을 쓰면서 드러났던 '일하는 습관'은 내가 바로 고치지 않는 한 나의 남은 일생동안 계속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이것을 보았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분의 책망은 나로 하여금 일하는 습관과 원칙을 다시 세우도록 했다.

사역의 초창기에, 나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위원회의 의장과 모임을 갖는 습관을 가졌다. 교회 사역의 전반에 걸친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습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내게 전할 때마다 내가 퉁명스러워진다는 것이었다. (내 안에 아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은 내가 약간 부루퉁해 있자, 그는 탁자 쪽으로 몸을 약간 기대면서 이렇게 말

하였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고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나치게 예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토론 속으로, 목사님의 감정을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자신의 모든 미래가, 내 눈 앞에서 행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와 내 꿈 사이에 놓여 있던 어떤 기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것이다. 그는 나에게 정말로 귀중한 통찰의 보물을 주었다. 나는 그의 조언에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를 기울인다. 나의 아내나 친구들, 동역자들, 혹은 나의 대적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마다 말이다.

또 한번은 나의 영적 멘토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나를 책망했던 적도 있었다. 그 때 나는 우리가 공통으로 알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였었다. '고든.' 그가 조용히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네.' 당시 나는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 아픔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27년이 지난 지금, 나는 누구든 다른 이를 깎아 내리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누구에 대해서든 말이다.

소중한 이들로부터의 책망

나의 '책망 멤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일군(一軍) 중 한 명은, 바로 나의 아내인 게일이다.

'당신 설교에 예로 등장하는 대부분이,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당신이 언급하는 모든 사업가는 언제나 집안이나 문벌이 좋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수들은 언제나 무언가에 최고인 사람들이고, 운동선수들은 언제나 큰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죠. 단체나 기관들도 언제나 가장 큰 곳들이고요. 최고, 최대, 1등!'

'혹시 당신이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오직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식의 메시지 말이에요.'

내가 게일과 결혼하기 일 주일 전에, 한 멘토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네. 만약 자네가 진심으로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자네에게 진리들을 말해 주실 거야. 하지만 만약 자네가 듣지 않는다면, 그녀는 자네가 이러한 선물에 관심이 없음을 깨닫고는 곧 입을 다물 것이네. 그렇지만 결국 자네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그의 말은 옳았다. 게일이 내 설교의 예시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며칠 후에, 나는 메릴린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또 다른 책망을 받았다. 메릴린의 경우는, 그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책망을 하였던 것이지만 말이다. 그녀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은 후에는 계속 멍한 상태로 있곤 하였다.

내가 우리 교회의 로비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면 서 있었을 때, 메릴린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메릴린!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서, 나누던 대화를 계속하였다. 아마도 메릴린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그녀는 우리를 향해 다가와서, 우리의 대화에 완전히 끼어들었다. 그녀는 약에서 덜 깬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였다. '맥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메릴린! 어떻게 지내요?' 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낼 시간은 없으시죠. 목사님은 중요한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바로 그날 이후로, 나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메릴린의 책망은, 나로 하여금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의 진짜 현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교인의 90퍼센트가 몇 주 전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나와 깊은 대화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현실 말이다.

메릴린이 옳았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싶은 호기심도, 또 그럴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작은' 사람들을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바빴던 것이다. 게일과 메릴린의 책망은 연타로 나를 흔들었다.

또 어떤 날은, 뉴욕시의 한 노숙자가 나를 책망하였다. 나는 그가 우리 맨하탄 교회 빌딩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조금 짜증이 났고 그에게 말했다. '이보세요, 다 끝나면, 모두 제자리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아 주세요.' 나는 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만약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면, 기쁜 맘으로 들어 드리죠.' 정중하게! 그의 말은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하였다. 이 남성은, 내 말 속에 '정중하지 않은 - 경멸'의 어조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다 끝나신 후에 그 주위가 깨끗하도록 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악수를 하고서 헤어졌다.

그러한 책망들은, 나의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계속 남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귀한 제자도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책망들을 해 주었던 각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모두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내가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권고해 주었던 이들이었다.

어떠한 책망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화를 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혹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 준 사람을 멀리 해버리기도 한다. 아니면, 아예 책망을 거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크리스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2:4) 그의 사랑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있어 '힘든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 결실을 맺었다.

편집자의 말/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전문 베스트 매거진 [목회와신학] 2003년 1월호(통권 163호) 266-269쪽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